

# 우리나라 흡연율 자료의 특성비교와 향후 개선방안

김희숙 · 박수잔 · 이희정 · 김영미 · 조성일\*

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교실

**연구배경** : 흡연은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통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발생과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.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(Health Plan 2010)을 수립, 건강증진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흡연율의 큰 감소를 잡고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. 따라서,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정책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흡연율을 정확히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.

**방법** : 성인의 국내 흡연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, 사회통계조사, 성인 흡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고, 청소년의 흡연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, 청소년 건강행태조사, 청소년 흡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비교, 분석하였다.

**결과** : 각 조사의 보고서들이 제시하는 흡연율이나 보고양식이 크게 달라 흡연율 자료의 일관성 있는 활용이 어렵다. 예컨대, 2005년, 2006년의 경우 성인 흡연실태조사의 경우 남성 흡연율이 각각 50.3%, 44.1%, 여성 흡연율이 각각 3.1%, 2.3%임에 비해,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한 남성 흡연율은 53.4%, 여성 흡연율은 5.9%, 2006년 사회통계조사에서 제시한 남성 흡연율은 52.2%, 여성 흡연율은 3.9% 이다. 이러한 비교와 연도별 각 조사 자료의 흡연율 추이를 보았을 때 사회통계자료는 계속해서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고,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제일 높은 흡연율을, 성인 흡연실태조사의 경우는 제일 낮은 흡연율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.

**결론** : 이러한 차이는 각 조사의 표본대표성과 크기, 설문문항(흡연자 정의), 조사방법의 차이와 연도별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. 본 연구에서는 여러 조사간의 흡연율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. 그 방안으로 조사문항의 동일한 사용, 조사 익명성 제고, 그리고 보고양식의 통일 등을 제시하는 바이다.

(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2007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)